

가요계 음원차트에 어쿠스틱 듀오 바람이 거세다



불빨간사춘기·멜로망스·마인드유 등 인디 듀오들 차트 정복·정복 예고에 나서

어쿠스틱 듀오 열풍이 불고 있다. 음원차트에 어쿠스틱 듀오 바람이 거세다. 역주행 신화를 넘어 음원퀀이 된 불빨간사춘기를 시작으로 멜로망스, 마인드유 등 인디 듀오들이 차트를 정복하거나 정복 예고에 나서는 모습이다.

불빨간사춘기는 인디 듀오의 신화를 만들고 있다. 안지영, 우지윤으로 이뤄진 여성 듀오 불빨간사춘기는 지난해 '우주를 즐겨' 역주행 1위를 시작으로 발표하는 곡마다 음원차트 1위를 달성하는 음원강자가 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곡 '썸탈가야'로 주요 음원차트를 올킬했고, 흥련을 유지 중이다.

특히 불빨간사춘기는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을 기준으로 앨범 수록곡과 음해 초에 발표한 OST 음

원 등 거의 10곡에 가까운 곡을 100위권에 입성시켜 믿고 듣는 음원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열풍을 떠나 하나의 음악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 이어 멜로망스가 새로운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다. 멜로망스는 김민석과 정동환으로 이뤄진 남성 듀오로 최근 '선불'이 차트 역주행으로 음원차트 정상에 등극하며 이번을 일으켰다. 이 곡은 멜로망스가 지난 7월 발표한 네 번째 미니앨범 '문라이트(Moonlight)'의 타이틀곡으로, 발매 이후 4개월 만에 빛을 본 것.

'선불'의 역주행은 지난달 16일 방송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의 '인디록 특집'을 계기로 시작됐다. 방송 이후 각종 SNS를 통해 멜로망스의 라이브 영상과 방송 클립 등이 퍼지면서 음원차트 상승으

'더 유닛', 절실함과 열망 잘 드러냈다



이루기 위해 나선 참가자들의 가슴 찡한 사연이 붕클함을 안겼다. 그들의 절실함이 어필되는 무대는 앞으로 기대감을 갖게 했다. 비가 '절실함'을 심사 첫 번째 조건으로, 현아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참가자'를 꼽았듯이, 이 절실함이 폭넓은 공감을 얻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될 수 있을 것이

나도 앞으로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았다.

'더 유닛'은 부트라는 기존의 룰을 도입했다. 참가자들은 무대를 하는 동안 관객 심사위원단의 부트를 받는데 관객 심사위원단 15%당 부

트가 주어진다. 관객 심사위원단 90%의 선택을 받을 경우 슈퍼부트로 '더 유닛'에 합류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선배군단에게 단 1부트라도 받으면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날 값진 슈퍼부트의 영예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가감 없이 보여준 유키스의 준과 걸그룹 스피카로 활동했던 양지원이 차지했다. 또한 선배군단의 6부트를 받은 큐브 연습생 이주현과 이현주, 필독을 비롯해 래환, 비바, 성하, 세리, 우희, 유정(라블), 유정(브레이브걸스)은 지, 이정하, 임준혁, 주드, 준(ACE), 지니, 지연, 지원, 찬, 채솔, 한아름, 해인, 해연, 희진이 합속에 들어가게 됐다.

참가자들의 뛰어난 재능과 끼, 치명적인 매력에 드러났다. 무대 위에서 자신이 준비한 것을 보여주며 열의를 불태운 참가자들은 기회가 없어 빛을 보지 못했던 현실을 실감케 한 것. 이에 앞으로 '더 유닛'과 함께하게 될 참가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가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중함을 지켜본 선배군단 8인의 뜨거운 열정도 느낄 수 있었다. 비

를 비롯한 황지열, 현아, 태민, 산이, 조현아는 진심이 담겨 있는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절실한 이들이 꿈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며 맹활약을 펼쳤다.

'더 유닛'은 탐과 노력이 배인 참가자들의 무대로 꿈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을 이들을 돕기 위한 선배군단의 애뜻한 마음을 오롯이 전했다. 단지 재미와 이야기거리를 위함이 아니라 참여해준 모든 참가자들의 의미 있는 도전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 따뜻함을 전했다.

한편, '더 유닛'은 연예계에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부족한 현실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치열한 도전과 성장 과정을 그린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직접 우주 최강 아이돌 유닛으로 탄생해 꿈의 활동을 펼쳐나갈 멤버를 뽑는다.

오는 11월 5일에는 여의도 KBS 별관에서 1차 미션 무대를 진행, 128명 아이돌의 첫 번째 관객 평가 무대가 공개되며 '더 유닛'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트와이스, '라이키'로 6연타 히트 정조준

걸그룹 트와이스가 올해 세 번째 출격에 나선다.

앞서 일본 활동으로 대열풍을 일으켰던 트와이스가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2017년을 완벽하게 접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보인다.

트와이스 5인 정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현, 채영, 쯔위)은 30일 오후 6시 전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정규앨범 '트와이스그램(TWICEGRAM)'을 발표했다.

올해 2월 'KNOCK KNOCK', 5월 '시그널'로 가요계를 평정한 트와이스는 신곡 '라이키(LIKE)'로 올해 마지막 순간까지 열일 모드에 돌입한다.

일으키는 트와이스는 또 한 번의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라이키'의 'L'을 형상화한 안무가 'TT'에 이어 다시 한번 트와이스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안무가 될 수 있을지도 기대되는 포인트. 또 한층 물오른 미모가 남심은 물론 여성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트와이스는 일본활동을 통해 싱글앨범으로선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받는 등 한류 걸그룹으로 독보적인 신기록을 쌓은 바 있다. 일본에서의 좋은 기운이 한국으로 이어질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 하나, 트와이스가 신곡 '라이키'로 음원차트를 올킬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관전포인트. 현재 음원차트는 에픽하이로 비롯해 멜로망스, 유중신, 유중신, 불빨간사춘기, 비투비 등 보컬 위주의 가수가 기세를 제압하고 있다. 아이돌의 강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대중성을 겸비한 트와이스가 신곡 '라이키'로 차트 공략에 나선다는 점 또한 가요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 데뷔곡 '우아하게'를 비롯해 '치어업', 'KNOCK KNOCK', '시그널', 'TT'에 이어 신곡 '라이키'로 6연타 히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30일 오후 6시 공개.

'블랙'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OCN 토일드라마 '블랙'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4일 첫 방송된 '블랙'은 죽음을 지키려는 의사 블랙(송승헌 분)과 죽음을 예측하는 여자 하림(고아라 분)이 천계의 룰을 어기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생사예측 미스터리다.

'블랙'은 저승사자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방송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블랙'은 탄탄한 저승사자

관과 죽음을 보는 여자, 그리고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긴장감있게 엮어 내며 매 회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블랙'은 지난 첫 방송에서 2.141%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출발선을 끊었다. '블랙'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입증하듯 2회 3.876%, 3회 3.963%, 그리고 사회에선 4.31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단 4회만에 두 배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

이는 OCN 시청률을 세 역사를 쓴 '터널'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도 유의미한 숫자다. '터널'은 첫 방송 시청률은 2.760%이었다 이후 8회만에 5.17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파란을 예고했고, OCN 역대 최고 시청률 6.5%를 기록했다.

'블랙'은 시청률 상으로만 봐도 '터널'의 상승세보다 더욱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빠른 상승세의 이유는 무엇일까. '터널' 제작진은 "'블랙'만의 풍성한 서사가 몰입도를 더하고 여기에 배우들의 열연이 합

쳐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자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죽음의 사자 블랙과 죽음을 보는 여자 하림이 어떤 관계로 변해갈지 지켜봐주세요 좋겠다"고 앞으로의 극 전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블랙'이 '보이스'(3회, 평균 5.7%)와 '38사기대'(16회, 평균 5.9%)를 뛰어넘고 OC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터널의 그것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음력 9월 11일)

- ▶ **황소** 36년생 긍정적 사고.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2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 ▶ **돼지** 37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나아진다.49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3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5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 ▶ **원숭이** 38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0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2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4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6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 **사슴** 39년생 안사가 해결된다.51년생 산행을 삼가라.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 **물고기** 40년생 외출을 삼가라.52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 **물소** 41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53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5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77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9년생 꿈을 접지 마라.
- ▶ **말** 42년생 까치가 집 주위를 맴돈다.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6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8년생 손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 ▶ **물소** 43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55년생 뜻밖의 재물은 있다.67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9년생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91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 ▶ **원숭이** 32년생 출입을 삼가라.4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6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8년생 내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0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 ▶ **물소**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5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1년생 합심하면 인덕이 크다.
- ▶ **물소** 34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46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58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0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2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 **물소** 35년생 부드러움을 잃지 마라.47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59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1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3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